

전남 '사이버농업인' 늘고있다

300여 농업인 토마토·무화과 등 온라인 판매

연합회 등 모임 만들어 전자상거래기법 공유도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사이버 농업인'들이 늘고 있다.

현재 전남지역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농업인은 300여명에 달한다.

이들 '사이버 농업인' 들은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전남농산물 판매장터'(shop.goodfarm.net)를 비롯한 쇼핑몰에 개인 농장 홈페이지를 연결해 친환경 유기재배 쌀과 산나물, 절임배추, 과일류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1998년 귀농, 시설하우스 1천

500평에서 토마토를 재배하는 김지태(42·보성군 조성면) 두리팜 대표는 2004년 8월부터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한 토마토 전량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하고 있다.

김씨는 95%이상 완숙상태의 토마토를 주문이 들어온 당일 수확·발송하고 있으며 100% 리플제와 후불제 도입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영암군 삼호읍에서 3천여평의 무화과를 재배하는 김종관(57)씨 역시 인터넷을 통해 매년 8월부터 11월말

■전남 주요 농산물 쇼핑몰

쇼핑몰명	주 소
전남농산물판매장터	shop.goodfarm.net
남도 장터	www.jnmall.net
남도 미향	www.namdomihyang.com
전남밭	www.jeonnammi.go.kr

까지 노지 무화과 70%를 인터넷으로 판매해 소득을 올리고 있다.

전자 상거래를 시작하던 지난 2002년 3천만원이던 매출이 지난해에는 7천여만원으로 늘었다.

강은수(59) 전남 사이버농업인 연합회장은 "초창기에는 홍보부족으로 애로를 겪었으나 차츰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며 "사이버 농업인들은 단순히 온라인 판매로 그치는게 아니라 도시 소비자들을 초청, 농장견학과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등 생산자·소비자간

의 유대관계와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전남 사이버농업인 연합회'와 '남도여성농업인 사이버연구회'(회장 손정희)를 결성해 회원 상호간 전자상거래 성공기법을 공유하고 있다.

전남 사이버농업인 연합회는 지난 달 31일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 온라인 광고 방법 및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편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6·17일, 21일 등 3차례에 걸쳐 농업인 130여명을 대상으로 우수 농장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운영기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송기동기자 song@

영암에 첨단농업·휴양센터 건립

郡-아시아중묘(주) 투자양해각서

신복면 5만평에 100억원 들여 조성

영암군 신복면에 첨단농업 및 휴양센터가 들어선다.

영암군과 아시아중묘주식회사는 지난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김일태 군수를 비롯한 류경오 아시아중묘(주)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농업 및 휴양센터 건립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시아중묘는 영암군 신복면 행정리 일대 5만 평의

부지에 100억원을 투자해 물류센터와 농산물 가공공장, 농자재전시관, 성서식물원, 체험관광농장 등을 조성한다. 이같은 투자가 가시화될 경우 연간 1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영암지역이 육종산업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1992년 설립된 아시아중묘는 현재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에 본사가 있으며 자본금 50억원에 지난해 매출 100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이날 김일태 군수는 아시아중묘의 첨단농업 및 휴양센터 건립에 따른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인·허가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영암=김현남기자 hnkim@



“설 이발 고마워요” 진도군 의신면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13일 설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 활동을 벌였다. 이들 회원들은 면내 이·미용업소의 협조를 받아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 20여 명의 가정을 방문, 봉사 활동을 펼쳤다. /연합뉴스

광양시 금호동 자치센터

‘작은 도서관’ 문열어

광양시 금호동에 작은 도서관이 문을 연다.

금호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강동수)는 15일 오후 3시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호 작은 도서관’ 개관식을 갖는다.

금호 작은 도서관은 금호동 624-22번지 금호 주민자치센터 내에 총 사업비 6천만원을 들여 1개월간의 공사 끝에 개관한다.

이 도서관은 31평 규모로 서가 및 열람대와 4천163권의 장서를 보유하게 된다.

/광양=김준호기자 chkim@

남 지방 말고 높여주고 성공하도록 돕자

‘글로벌추진세 운동’ 앞장

함평군, 수군민 동참 유도

함평군(군수 이석형)이 글로벌추진세운동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1호 인증을 받은 함평군은 가정과 직장은 물론 전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공무원과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등 1천여명이 이미 교육을 마쳤으며 유관 기관까지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지난 1995년 국제영어문화협회 이사장이 민병철 박사에 의해 창안된 이 운동은 2005년 7월 전국운동본부가 결성되면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신한은행이 조흥은행과 통합하면서 제 2의 창업을 선언 할 때 행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이 추진세운동에 앞장서 추진세운동 실천기업 제 1호로 인증했다.

전국 지자체로는 지난달 30일 함평군이 동서화합을 위한 ‘연날

리기 및 나비날리기 대회’를 주관해 추진세 인증을 받았다.

군민 김모(46·함평군 대동면)씨는 “각종 선거 등으로 소 지역주의와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하면서 심화된 군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더 할 나위없이 좋은 운동인 것 같다”고 말하며 “홍보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군민들 가슴에 파고들도록 추진세운동이 확산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글로벌 추진세운동=남을 비

방하는 대신 상대를 높여주고, 성공하도록 돕는 법 국민정신 문화운동. 국악에서 소리꾼이 참을 할 때 힘들지 않고 경쾌하게 소리할 수 있도록 고수가 용기를 분문아 주는 것이 이 운동의 기본이다.

보성군-서울 강남구

인적·물적교류 ‘결연’

보성군이 서울 강남구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보성군과 강남구는 지난 12일 보성군청 회의실에서 양 자치단체장과 이종구 국회의원의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식을 가졌다.

앞으로 보성군은 우수 농산물을 강남 대형 유통센터에 공급하고, 아파트 부녀회원 등을 현지에 초청하는 등 강남구와 우수 농산물 공급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강남구는 보성지역 고교생에게 강남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수능방송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이어서 지역 학생들의 실력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양 지자체는 각 분야에서의 인적교류 확대와 벤치마킹을 통한 상호 우수시책 도입 등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키로 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광주일보 인터넷 신문
www.kwangju.co.kr

기능성 쌀·잡곡

‘웰빙잔치’ 상품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기능성 쌀과 잡곡이 웰빙 브랜드로 상품화됐다.(사진)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기능성 성분이 다량 함유된 녹색쌀과 조, 수수, 기장, 검정콩(서리태) 등 8종의 농산물을 친환경농법으로 생산, ‘웰빙잔치’라는 브랜드명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번에 상품화 된 기능성 쌀과 잡곡은 강진군 성진면 명산리 등에서 무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유



기능성으로 생산돼 국립 품질관리원으로 부터 ‘유기농 인증’과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았다.

판매가격은 500g씩 소포장된 8종 1세트에 4만3천원, 문의 (061)432-5068 /송기동기자 song@

해남군 스포츠마케팅 활발

대한축구협회·배구협회서 감사패 등 받아

해남군이 활발한 스포츠마케팅을 펼쳐 대한축구협회와 배구협회로 부터 공로패와 감사패를 받았다.

해남군은 지난달 30일 열린 ‘2007 축구인의 날’ 행사에서 우슬경기장에 3면의 축구장을 개설하고 각종 경기를 유치하는 등 축구진흥에 힘쓴 공로로 대한축구협회 공로패를 수상했다. 또 지난 6일 ‘배구인의 날’ 행사에서는 국가대표 배구 상비군 지원에 대한 보답으로 배구협회 감사패를 받았다.

해남군은 매년 동계전지 훈련팀을 유치,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시설

및 물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올해 해남에는 64개팀 1천970명의 선수가 전지훈련을 벌였으며 가족 등 관계자 3만여 명이 해남을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오는 4월3일부터 11일간 제 43회 춘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이 해남에서 열려 80개팀 2천400여명이 기량을 겨루게 된다.

이밖에 4월5일부터 ‘2007 현대캐피탈배 전국 대학배구 춘계대회’도 개최돼 17개팀 550여명이 경기를 펼친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함평경찰 불우시설 방문



함평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과장 이계웅)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2일 청소년 보호시설인 삼애원을 방문해 직원들이 모은 위문품을 전달했다. (사진)

삼애원에는 현재 70여명의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